

국제유가 강세 당분간 계속진다!

중국, 2011년 배럴당 110달러 전망 ... 선진국 경제회복 지연으로

국제유가가 2011년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터넷 매체인 시나닷컴의 11월1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장위옌(張宇燕)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은 최근 <2010년 중국사회과학논단>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국제유가가 2011년 배럴당 80-110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위옌 소장은 국제유가가 2002년부터 상승세를 지속해 금융위기 직전 고점을 찍은 후 금융위기를 거치며 무려 40% 이상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회복했고 2011년에는 경제회복을 감안할 때 2010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위옌 소장은 금융위기가 장기간 지속됐고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2009년 구매력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이 -0.6%, 시장환율기준 성장률이 -2.0%로 떨어졌지만 이제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 회복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번 경제회복의 특징으로 약한 회복강도, 느린 회복속도,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 나라마다 다른 회복속도, 선진국의 느린 회복, 금융위기 후 국가별 경제위상 재편, 높은 불확실성, 밝지 않은 세계경제전망 등을 꼽았다.

또 선진국들의 경제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려 무역회복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아 환율파동, 신규대출 문제, 화폐전쟁, 보호무역주의 따위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6>